

## ■ 영상 택배 시즌 2 - 4월 혁명 이야기

9분만에 정리하는 4.19 혁명 | 윤태호 작가가 말하는 4.19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이번 주에 전해드리는 영상택배는 4.19혁명을 그린 책, '사일구'를 통해 4월 혁명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내일은 4월 혁명 61주년입니다. 영상 속 그림은 이끼, 미생, 내부자들 등 이 시대를 날카롭게 그리고 있는 윤태호 작가의 작품입니다.

세상을 향해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한 4월 혁명 속으로 들어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2014. 04. 16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송경동

돌려 말하지 마라  
온 사회가 세월호였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세월호다  
자본과 권력은 이미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평형수를 떨어냈다  
사회 전체적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떨어내고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성을 주입했다  
그렇게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노동자 세월호에 태워진 이들이 900만 명이다  
사회의 모든 곳에서  
'안전'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어야 할 곳들을 떨어내고  
그곳에 '무한 이윤'이라는 탐욕을 채워 넣었다  
이런 자본의 재해 속에서  
오늘도 하루 일곱 명씩 산재라는 이름으로  
착실히 침몰하고 있다  
생계 비관이라는 이름으로  
그간 수많은 노동자 민중들이 알아서 좌초해가야 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이들이 지하 선실에 가두어진  
이 참혹한 세월의 너른 갑판 위에서  
자본만이 무한히 안전하고 배부른 세상이었다  
그들의 안전만을 위한 구조 변경은  
언제나 법으로 보장되었다  
무한한 자본의 안전을 위해  
정리하고 비정규직화가 법제화되었다

돈이 되지 않는 모든 안전의 업무가  
평화의 업무가 평등의 업무가 외주화되었다  
경영상의 위기 시 선장인 자본가들의 탈출은 언제나 합법이었고  
함께 살자는 모든 노동자들의 구조 신호는 외면당했고  
불법으로 매도되고 탄압당했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자본의 이동은 언제나 자유로운 합법이었고  
위험은 아래로 아래로만 전가되었다  
그런 자본의 무한한 축적을 위해  
세상 전체가 기울고 있고 침몰해가고 있다  
그 잔혹한 생존의 난바다 속에서  
사람들의 생목숨이 수장당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돌려 말하지 마라  
이 구조 전체가 단죄받아야 한다  
사회 전체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이 처참한 세월호에서 다시 그들만 탈출하려는  
이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 위험한 세월호의  
선장으로 기관장으로 갑판원으로 조타수로 나서야 한다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평형수로 에어포켓으로  
다이빙벨로 긴급히 나서야 한다  
이 세월호의 항로를 바꾸어야 한다  
이 자본의 항로를 바꾸어야 한다

7년 전, 2014년 4월 16일을 누군가는 “아직도”냐고 묻고 누군가는 “여전히”라고 답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추모행사가 이번 주 내내 열렸습니다. 기억, 기억,  
기억... 기억을 넘어 진실은 무엇이고 어디쯤 있는 것일까요?

## ■ 천년고도 경주를 찾아서 - 열두 번째 이야기

### 청송의 주왕산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주왕산 전경

몇 십 년 만에 찾은 주왕산(周王山)이다. 대전사를 통과해 곧장 주봉(周峯)으로 향했다. 주봉까지 줄곧 경사가 급했으니, 계단이 수시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곡 건너편의 연봉을 내다보는 재미가 아주 좋았다. 이곳의 암봉들은 실로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모습이다. 오히려 중국의 산수 닮은 풍모를 지녔다. 까닭에 은(殷)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周王)을 이곳의 전설로 끌어들이고, 그를 망가뜨린 팜므파탈 달기(達己)까지 인근의 약수터로 끌어들이는 모양이다.

아무튼 이곳의 우람하고도 기묘한 풍광은 오랜 세월 사람들을 홀렸으니, 남성적인 향취가 물씬물씬 풍겨난다. 기세가 등등하다. 전망대가 나타날 때마다 이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고, 더욱 가까이하기 위해 걸음을 보챘다. 어느새 기암들이 눈길보다 아래로 내려가고, 주봉이 내다보였다. 마침내 주봉의 정상에 올라 주변의 산들을 둘러보았으니, 금은광이와 가메봉이 아득했다.



### 주왕산 협곡

그런데 칼날능선삼거리에 다다를 때까지 마주치는 사람 하나가 없었다. 주왕산을 다시금 오롯하게 독차지한 것이다. 언제 어떤 국립공원이 이렇게 통째로 자신을 내준 적이 있던가? 호젓한 행복감이 밀려온 건 완만한 내리막의 편안한 발걸음 때문만은 아니었다.

후리메기삼거리를 500m정도 앞두었을 무렵부터다. 오솔길은 계곡을 따라가는데, 도대체 계곡의 물이 동으로 흐르는지, 서로 흐르는지 분간이 되질 않았다. 군데군데 얼음으로 이어진 구덩이들이 계속해서 높아졌다가 알아졌다. 길도 덩달아 조금씩 오르내렸다.

그러다가 후리메기삼거리에서부터 본격적인 하산이 시작되었는데, 어느 곁에 이름부터 희한한 절구폭포가 나타났다. 뽀뽀 얼어붙은 절구폭포는 진기한 형용을 눈부신 나신으로 드러냈다. 손대면 금방 다시 쏟아질 것 같은 투명한 멈춤이었다. 절구에 해당하는 암면 또한 아주 둥글고도 매끈했다.

이윽고 나타난 용추협곡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말로 꾸며낼까? 물길은 깎아지른 바위틈을 비집어가며 기이한 형상을 끊임없이 빚어냈다. 석문이 열렸고, 물이 소용돌이쳤다. 바위와 시냇물로 빚어낸 별세계가 활짝 펼쳐졌다. 추운 날씨 때문에 우렁우렁하던 물소리는 얼음 속에 갇혔지만, 겨울의 이미지 하나가 가슴속 깊이 따리를 틀었다.





절구폭포



주왕굴



무장굴

다시 오솔길로 올라가 주왕굴(周王窟)과 무장굴(武藏窟)에 들었다. 주왕굴은 오늘날 주왕사의 산신각으로 쓰이고 있었는데, 이곳의 입구를 가리던 물길 또한 퐁퐁 얼어붙었다. 무기를 숨겨두었던 무장굴은 본연의 역할을 잊고서, 앞쪽의 아름다운 봉우리와 계곡에 반해 그 네모난 입을 헤하며 벌리고 있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주산지 또한 빠뜨리기가 무엇했다. 주산지는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란 영화를 보고 와야 더 아름다운 곳이다. 왕버들로 이루어진 경치가 꿈결처럼 애잔한 곳이다.



주산지

다음 주는 <경주 답사기> 마지막 회 “봉화의 청량산”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